

칼럼



장기채 주필

옛사람들의 삶에서 배우는 '노년의 지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다. 많은 일을 경험하며 말도 많지만 지혜도 많다.

초라한 걸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꽃이라면 노인은 지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노년의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는데 있었다.

퇴계 이황 (1501~1570)은 하루 2끼만 먹었다.

반찬도 무, 가지, 미역 뿐일 때가 많았다.

농암 이현보 (1467~1555)는 임금이 수십 번이나 불렀지만, 한번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이 일흔에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75세에 고국으로 돌아온 청음 김상헌 (1570~1652)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고향에서 두문불출했다.

보통 살아서는 천지에 순응하고 숨을 거둘 때는 편안했다.

대부분 어린 자는 오래 산다.

조선시대 27명 임금의 평균 수명은 46세였지만 청백리 (219명)는 68세였다.

고려왕들은 평균 42.3세까지 살았지만 스님들은 70.2세까지 수를 누렸다.

요즘엔 노인부양제도를 화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원 덕분에 대한민국 이혼율이 낮아졌다는니, 노후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니, 특히 자식이 사업하다 망하면 온 가족이 다 망하게 된다는니, 이러쿵 저러쿵 잡다한 말들이 오간다.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씩씩하기만 하다.

과거 효를 강조하는 유교사상의 대가족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친 현대의 핵가족시대에는 더 이상 본인의 노후를 자식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것도 병엄한 현실이다.

우리는 흔히 지식(知識)은 양적 개념이며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인데 비해, 지혜(知慧)는 질적 개념이며 미래에 대해 하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다.

지식이 사실 인식인데 비해, 지혜는 의미 각성을 의미한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 것과 가까운 것을 같이 볼 줄 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작다고 보지 않고, 큰 것도 크다고 보지 않는다. 물건의 양은 무궁하다는 것을 믿

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의 흐름에 대해 알고 있다.

오래 살아도 싫어하지 않고, 짧게 살아도 더 바라지 않는다.

시간은 멈출 수 있는게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찾다가 기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분복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반대로 두 손을 펴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아 가지고 싶지만 죽을 때는 가진 것을 다 내주어 빈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사랑 하는 법을 배우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배우는 법을 배우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노인들은 지혜고, 버려야하고 할 겨를조차도 없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이 더 많다.

이제 큰 지혜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한 때 세계를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결국 나이가 들에 따라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노년기를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지만 노년은 원숭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린이와 똑같이 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아야 한다.

미운소리, 우는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랑 하지도 말고 조심 조심 알려줘야 한다.

알고도 모른 척 어수룩하고 그렇게 사는것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옛날 노년의 지혜는 천지에 순응했다.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면서 살았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직한 소처럼

모두들 경기가 나빠서 살기 힘들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해 보면 현재가 가장 힘든 건 아닐는지 모른다.

어린 새끼 때부터 집에서 키운 우직한 소는 시골집의 재산목록 1호였고 그만큼 힘든 시기였기에 소는 농부의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가축였다.

그냥 가축이 아니라 노동을 대신하고 그 생산물을 제공하는 수단이었으며 새끼를 낳아 목돈을 만질 수 있게 하고 젖을 나누어 주

기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의 무게를 못 이기어 늘어 버린 소 허리가 굽어지고, 또 그 세월만큼 뼈마디가 굽어지고 살갱이 메말라 거칠었어도, 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논밭을 갈고 추수할 때 같이 동행하면서 일을 한다.

또한 일생을 소는 주인과 살면서 주인집을 위해 헌신하고 노동을 제공하면서 함께 동고동락 하면서 살아간다.

필자 역시 시골에서 자라면서 소와 같이 생활한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 긴 세월 소가 가져다 준 노동의 대가에 대해 늘 위로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진하게 배어 있다.

옛그제 운행 중 트럭에 실려도 축장으로 가는 소들이 얼굴을 내밀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거친 호흡을 몰아쉬고 트럭 바퀴 틈 사이로 소 배설물이 도로변으로 흘러 내리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찡했다.

도축장이 가까워지는 것을 안 느끼이며 최후의 발악일까 내가 생각해도 몇 분만 가면 도축장이 있는데 우직한 소도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마지막 도축장으로 가는 것을 알지만 체념하듯 머리를 내놓고 눈물 흘리는 듯 한 그 모습이 한없이 마음 아파왔다.

우직하지만 항상 집에 있으면 든든한 소처럼 우리 인생도 든든

하고 알찬 생활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일상의 모든 위대한 일은 소소한 일부터 시작되며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는 착실한 노력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으로 움직여 스스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으며 우직한 소처럼 한 걸음 한걸음 꾸준히 걷는 것이 인생에 있어 중요하다.

오늘날 불신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소처럼 우직하며 편견 없고 정직하게 조금은 느리더라도 서두르지 않는 여유를 갖고 살았으면 한다.

국종균/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